

2. 일본 GPIF, Climate Action 100+ 가입

- 최근 일본 후생연금펀드(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 이하 GPIF)⁵⁸⁾는 홈페이지를 통해 ‘Climate Action 100+’ 가입을 공식화함⁵⁹⁾
 - GPIF는 위탁운용사와 투자대상기업 간 ESG 요소를 바탕으로 하는 건설적인 대화를 증진하여 전체 자본시장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동 이니셔티브의 가입은 그 노력의 일환임
 - GPIF의 가입에 대해 ‘Climate Action 100+’측에서는 GPIF의 참여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과 기회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촉구하는 동시에 GPIF의 지원이 동 이니셔티브의 성공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힘
 - ‘Climate Action 100+’의 투자자 대표 중 하나인 CalPERS 역시 GPIF는 글로벌 리더로서 파리 협약의 목표 달성과 회사 및 장기투자자들의 효익을 위한 ‘Climate Action 100+’의 포부에 영향력과 통찰력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포함
- ‘Climate Action 100+’은 책임투자원칙(PRI)에 따른 5개년 계획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탄소 배출 억제, 기후변화 관련 금융 정보 공시 강화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온실가스 배출기업(systematically important greenhouse gas emitters)들을 대상으로 관여활동을 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임
 - 현재까지 자산소유자 및 자산운용사를 포함해 약 300개의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 자산 규모는 31조 달러에 달함
 - 대표적인 기관으로는 ABP, AP1 ~ 4, AP7, APG, CalPERS, CalSTRS 등이 있음⁶⁰⁾
 -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하여 이에 입각한 투자를 하는 사례로는 지속가능성을 투자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는 노르웨이 연기금 운용사인 스토어브랜트(Storebrand Asset Management)⁶¹⁾가 있음⁶²⁾
 - 스토어브랜트는 ‘Climate Action 100+’에 입각한 투자를 위해 42개의 석유 및 천연가스 기업에 메탄 배출을 측정하고 줄이는 것을 요청하고, 지속적인 컨퍼런스 콜을 통해 보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58) 일본 후생연금펀드는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일본의 연기금으로 후생연금 및 국민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독립 행정법인이며, 세계 최대 규모의 연기금임

59) GPIF, 2018.10.9., "GPIF joins Climate Action 100+", [https://www.gpif.go.jp/en/Climate_Action_100%2B.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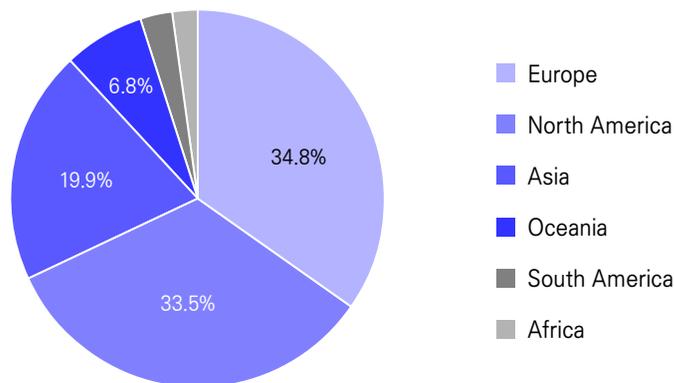
60) Climate Action 100+ 홈페이지, http://www.climateaction100.org/ [2018.11.1.]

61) 스토어브랜트는 약 890억 달러의 개인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 LG생활건강, 현대모비스, 신한금융그룹, 네이버 등 국내 96개 기업에 약 1조 3300억 원을 투자하고 있음. 더나은미래, 2018.5.28., "노르웨이 연기금운용사가 10년 수익률 9%, 1년간 16% 수익률 달성한 비결은?", [http://futurechosun.com/archives/33785]

62) 뉴스토마토, 2018.6.4. "국민연금 사회책임투자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동참해야",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277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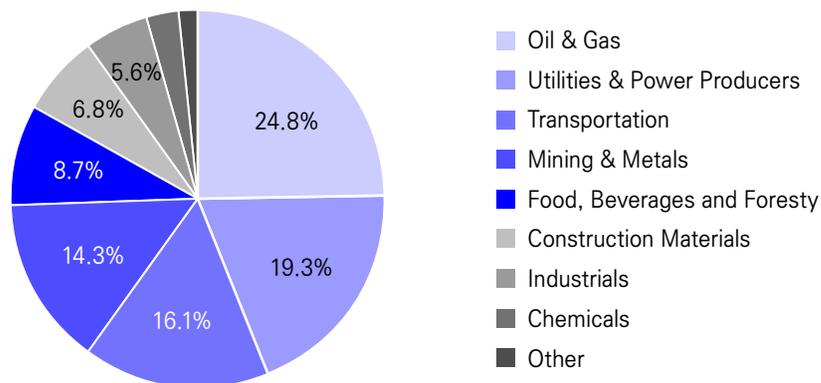
- 'Climate Action 100+'은 홈페이지를 통해 'Focus Companies'로 161사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음⁶³⁾
 - 'Focus Companies'는 Global Investable Equity의 85%를 대표하는 글로벌 인덱스인 MSCI ACWI에서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 모델링 기법과 CDP에 보고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선정되며,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의 주요 관여활동 대상기업임
 - CDP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연간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동 리스트에는 BP, Chevron과 같은 대형 석유기업과 Ford Motor Company, Volvo, Nestlé 등이 포함되었으며,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한국전력공사, POSCO, SK이노베이션 등이 포함됨 ([그림 1], [그림 2] 참조)

[그림 1] Focus Companies by Region



*출처: Climate Action 100+ 홈페이지

[그림 2] Focus Companies by Sector



*출처: Climate Action 100+ 홈페이지

63) 주석 59)와 동일